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희망!

낮 예배 시 성찬식... 저녁엔 임마누엘찬양대 주관 음악예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다.

부활절을 맞은 오늘 I·II·III부 예배를 부활절예배로 드린다.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통해 악과 불의의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다시 사신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감격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헌금시간에는 부활절 감사헌금과 고난주

간 동안 절제하여 모은 금식헌금을 함께 드린다.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김상철 장로, 지휘 배영준 집사, 오르간 한현숙 집사, 피아노 백송희 선생)가 준비한 찬양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십자가와 고난·부활에 관한 것이다.

한편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서별로 준비한 부활절 행사가 진행된다.

순례자 컬럼

인류 최대사건

인간이 불과 바위를 발견한 것, 인쇄술과 원자폭탄 그리고 컴퓨터와 인공위성을 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은 인류역사를 압도하고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 사망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천지개벽 이래 인류 최대사건이다.

제 9차 김치세미나 16일 개최

KIMCHI

국내 주재 선교사 등 대상 유니온교회당서



제 9차 김치신학세미나가 16일 (목)에 열린다.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은 올해의 김치신학세미나를 16일과 5월28~29일 등 두 차례로 나눠 여는데 이번 주에 개최되는 김치신학세미나는 그 첫번째가 된다.

제 9차 김치신학세미나는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한 선교동역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세미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교회백주년기념사업회·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후원한다. 초청 참가자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 선교사 및 목회자, 국내 학교(중·고·대)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사와 교수, 국내 신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등 모두 300여 명이다.

16일 김치신학세미나는 서울 마포구 합정

동 양화진 외인묘지 내 유니온교회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며 I부 예배, II부 친교 및 식사, III부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서울교회·사랑의교회·명성교회·충신교회·강변교회·할렐루야교회·신촌성결교회 등 교회, 예장(통)·예장(합)·침례교·감리교·고신 등 교단, OMF 등 선교회, 연세대·이화대·서울신대·창신대·총신대·ACTS·한남대·전주대·한동대 등 기독교 학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우리 교회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신촌성결교회와 함께 300명 분 식사를 준비한다. 이종윤 목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특히 4월에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땅에 첫발을 디딘 4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4월 중 이같은 행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에 있을 세미나는 우리 교단(예장) 소속 선교사 25명을 초청하여 제주도 이기풍

목사(한국교회 최초 선교사)기념관에서 열기로 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주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한국교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 세미나는 예장통합측 선교위원회와 KIMCHI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김치신학세미나는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신학적인 재충전과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국복음화에 기여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 유럽 7개국 목회자 초청을 시작으로 해마다 중국어권, 힌두교권, 아프리카, 러시아, 모슬렘권 그리고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등 세계 52개국의 목회자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올해 국내 주재하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실제로 한국과 한국 교회를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관련기사 4면)

부활절 메시지

이중윤 목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당황케 했고 의기를 소침케 했을 뿐 아니라 절망에 빠지게 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또 주님을 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절망의 벽에 부딪혀 울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절벽 앞에서도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살아 움직인다.

그러므로 1998년 부활절 아침에 예수 부활과 함께 죽었던 믿음, 소망, 사랑이 다시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믿음 · 소망 · 사랑이 다시 사는 날이 되어야

첫째로 믿음이 다시 살아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주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은 바는 믿었다. 예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믿음도 그 시간 완전히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흩어지고 말았다.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글로바와 마리아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른 이들은 갈릴리로 갔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이렇게 흩어져 제 갈 곳으로 가버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와 의심 많은 도마도 옛날에는 믿었으나 지금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말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고 하였다. 이것은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믿음은 죽어있지 않은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가 하신 약속을 믿는 참제자가 되도록 하자.

둘째로 소망이 살아야 한다.

제자들의 믿음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희망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말았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를 통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꿈꾸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슬픈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소망이 죽었음을 선언했다. 절망으로 그들 심령은 어두워졌고 심지어 동행하고 계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조차 알지

를 못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알았지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다”(눅 24:17-21)고 하면서 그들은 절망에 섞인 소리를 퍼부었다. 그들이 바란 메시야는 생명 구원을 하실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분 정도로 보았고 생각했으니 그들이 바라던 희망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것은 당연하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소망은 죽어있지 않은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깨진 소망을 다시 살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하자.

셋째로 사랑이 살아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다. 잔인한 환멸과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다. 그를 생각하는 마음엔 변함이 없었다. 가장 대표적 인물이 마리아다.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다. 일곱 마귀에게 잡혔던 마리아인지(눅 8:2),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인지(눅 7), 간음한 창녀였는지(눅 7:47) 분명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죄나 역경 속에서 주님의 특별 은총으로 사유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여인임엔 틀림이 없다. 마리아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다. 기름을 준비하여 그 시신이라도 발라 드리려고 예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도 소망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죽었다. 오직 사랑만이 그로 하여금 무덤까지 달려가게 했다.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목격한 사람 중 마리아가 있었다(마 27:55-56, 막 15:40, 요 19:25).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고난을 목격하므로 그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그녀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

던 것도 호기심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죽었으나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 드리고 싶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 무덤의 돌을 누군가가 옮겨줄 것을 기대하고 연약한 여인들이 어둠을 헤치고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길을 막지 못했다. 결국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음성을 듣고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 마리아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죽었던 믿음이 이제는 무덤에서 새로 튀어나온 것이다. 희망은 다시 소생케 되었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께로 흩어졌던 제자들은 모이게 되었다.

지금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을 모두 상실한 채 어둠에서 헤매이고 있다면 사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명료하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은 나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데서 나타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롬 5:8)는 것을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믿음을 낳고 희망을 주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그를 사랑하는 이요 그 안에 소망을 갖는 이도 그렇다. 우리에게 비극적 사건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이것들을 버린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라. 어떤 환경도 역경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에게 희망을 걸게 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예수 부활을 감사하는 이 새벽에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기도회 후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제오복

(집사·사랑부 교사)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혼하들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간구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교사철야기도회는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말씀과 찬양,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 시간 중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신 믿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성령충만함을 상기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께 이 찬란한 부활절 아침에 다시 간구하옵기는 "주님! 서울교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또 그때 저는 교사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교사로서 기도와 공부의 골방을 갖고 사랑의 심방을 하고 있는가, 엘리야처럼 영혼의 인공호흡을 하고 또 겹겹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물으며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서울교회 모든 교사들이 엘리야와 같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을 본받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부활 · 부활절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교회의 가장 큰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전 15:20).

신약에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13번 이상 현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전 15:4-8).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만으로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이 입증된다.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고전 15:58)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역사적 사실로 믿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 첫 만월이 지난 후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낸다. 이 날짜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데 따르는 것이다.

■부활절 단상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더니

김광신 (장로·장년부 부장)

지금은 할 말이 많은 시대이다.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안되는 것뿐이고 망할 일만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더구나 잘못된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지를 않고 정치가와 재벌과 교회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독설에 가까운 언어를 토해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원한이 조금은 수그러든다. 그렇게 잘 살던 때가 바로 었그제 같더니 하루 아침에 거렁뱅이가 되었고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다. 가정을 책임질 가장이면서도 집에는 근처도 갈 수 없는 못난이가 된 것이다. 나 혼자만 배고픈 서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 모두가 굶어죽게 되었고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는 위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므로 화살을 쏘아서 범인을 잡고 이 상황의 잘못을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리게 되어 있다. 이 정도 이상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해보지 않은 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누구에게 해답을 요청할 수가 있겠는가. 나사렛 예수에게서 길을 물어보자.

죄 없으신 예수는 자기 민족의 고소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

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심판을 받으시게 되었다. 그 사실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실제로 예수는 무죄하셨다. 고소를 당할 건도 없으셨고 더구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곤욕을 당하고 계시고 괴로움과 수치와 침뱀음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계신다. 알마든지 정당방위를 선언하시고 그 재판 자리에서 해방을 받으실 권리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법정에서 예수님은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마 27:14). 가장 많은 말로 변호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자기를 위한 변호를 거부하셨고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 하셨다.

일을 만들고 역사를 세우는 일이 입을 열지 않음에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에 예수님의 침묵이 변하여 변호와 자기 옹호로 바뀌었다면 십자가와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한 인간으로 사시는 길은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인류에게 멸망이 찾아

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종지부를 찍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끝날 뻔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움과 곤욕을 겪으신 후에 그의 인생을 마치셨는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약속은 끊어졌었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예수님을 무덤에 오래 두지 않으셨다.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이다. 온 인류의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 있기에 그렇게 많은 언어를 침묵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분한 감정을 무응답으로 채우신 것이다.

내가 입만 한 번 뽕끗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수 있다고 말한 정치인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자신을 위하여는 입을 열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원망과 시비와 분쟁을 그치고 대답을 유보하는 시간으로 채워야겠다. 따지고 보면 정치인, 재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흉이고 주범이고 당사자임을 알아야겠다. 나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났고 나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고 나 때문에 조국이 IMF 위기를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나는 입을 열 자격이 없고 더욱 대답할 말이 없어야 한다. 아무 대답도 없으셨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김치(KIMCHI)?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국내외 목회자들의 학문적 지고성(Academic Excellence)과 영적 성숙(Spiritual Maturity)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목회자신학세미나와 김치신학세미나를 열고 있다.

김치(KIMCHI)라는 말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영어 첫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그 이름 속에는 만만년 우리 역사에서 우리 입맛을 돋구어 온 김치처럼 세계 교회에 잃어버린 영적 입맛을 되찾아 주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타 문화권 교회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자국 복음화에 기여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지역 복음화 또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목회자의 갱신을 통해 복음 확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려는 데 있다. ③ 한국 교회 내에 선교 비전을 확산시키고 국가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선

교 전략을 배우려는 데에 있다. ④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성장과 갱신의 비전을 심는다.

세계 선교전략의 하나로 자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 채증전을 위한 신학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 세미나는 1990년 동유럽 7개국 -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 교회 지도자를 시작으로 그간 해마다 중국계 목회자, 힌두교계 목회자, 아프리카 목회자, 러시아 교계 지도자, 모슬렘계 목회자, 오세아니아와 그 주변국 목회자, 아시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김치신학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김치신학세미나는 1996년 2월 세계 로잔(Lausanne)중앙위원회에서 세계복음화의 최선의 전략으로 인정받아 서울교회의 김치(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가 로잔의 공인기관으로 인준받기에 이르렀다. 로잔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리더십 개발과 흩어져 있는 복음주의 단체들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운동이다.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강남 YMCA대강당에서 진행 중에 있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초등부= 12일(주일) 집회시간에 달걀콘테스트를 한다. 학생들이 만든 장식달걀 중 가장 예쁘고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선생님들이 심사하여 선발하게 된다. 또 연극부 학생들이 오랫동안 연습해 온 부활절 연극 “부활절에는 왜 달걀을 주는가?”가 공연될 예정이다. 이 연극의 연출은 김성환 선생이 맡았다. -조대영-

◇ 청년부= 11일(토) 집회 후 회원이 강남역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청년부는 매달 한번씩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특별히 장식 달걀과 전도지를 이용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 -정치은-

◇ 장년부= 12일(주일) 12시 30분부터 “부활의 현대적 의미”라는 제하의 특강을 한다. 강사는 김영한 목사이며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정자-



◇ 교사 교육정책세미나= 강남노회 소속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정책세미나가 14일(화) 오후 7시 소망교회당에서 열린다. 당일 참가자를 위해 식사와 선물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세미나에 교회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⑤ 4월 13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1907년 한국교회회개운동과 사회변화 (민정배 교수)
- ⑥ 4월 2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한국교회 각성운동의 방향(이만열 교수)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동정

◆이종운 목사는 14일(화) 애증회(범조인선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17일(금)엔 총회주제위원회에 참여한다.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박정선·김남순 집사 가정에서 제공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믿음·소망·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2. 제9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해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 강좌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